

세계 3대 오페라 클라리넷 수석 연주자 “스스로가 본인에게 최고의 선생 돼야”

황인찬 기자 phillip0503@khu.ac.kr

“본격적으로 클라리넷을 시작했을 때에도 음악에 흥미나 재미를 느끼진 못했어요. 솔직히 시켜서 하는 경향이 있었죠.” 미국 3대 오페라단으로 꼽히는 ‘리릭 오페라 오브 시카고’의 수석 연주자 김희수(기악 2012) 동문의 대답이 다소 의아했다. 김 동문은 지금 동양인이 드문 보수적인 클래식계에서 악기와 하나 돼 관객들에게 잊지 못할 감동을 선사하고 있기 때문이다.

올해 초, 김 동문은 엔리케 마줄라 음악감독에 의해 리릭 오페라 오브 시카고의 신임 클라리넷 수석 연주자로 임명됐다. 빈 필하모닉 출신의 세계적인 지휘자 마줄라 감독이 이끄는 ‘리릭 오페라 오브 시카고’는 70여 년의 유구한 역사를 지녔다. 메인 공연장인 ‘시카고 리릭 오페라 하우스’는 미국에서 두 번째로 큰 3,563석을 보유하고 있다. 김 동문은 압도되는 객석 앞에 설 때마다 “연주 전엔 큰 책임감을, 연주 후엔 큰 성취감을 느낀다”고 말한다. 음악이 재미없었다는 소년을 무엇이 미국 3대 오페라단의 수석 연주자 자리까지 이끌었을까.

음악에 흥미 없던 소년 음악에 몰두하다

김 동문은 클라리넷 연주자였던 아버지의 영향으로 음악을 접했다. 아버지께 직접 음악을 배우며 7살 때부터 악기 연주를 시작했다. 본격적으로 클라리넷을 잡은 건 고등학교였다. “아버지의 영향으로 아무래도 악기 연주를 자주 들을 수밖에 없는 환경이었어요. 자연스럽게 음악을 접하게 됐죠. 사실 생각해보면 잘할 수 있던 게 클라리넷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. 공부에도 흥미가 없었고 워낙 노는 걸 좋아했거든요.”

남들보다 늦은 나이에 본격적으로 시작했던 음악이었지만 당시에는 큰 흥미를 느끼진 못했다고 말한다. “힘들 때도 많았지만 긍정적으로 생각하며 멀리 보려고 노력했어요. 대학 입학 후 앙상블을 연주하면서 그제야 음악에서 즐거움을 찾았어요.”

대학 시절 김 동문은 항상 어딘가 몰두해있는 학생이었다. 동기들은 그런 김 동문을 ‘미치다’에 그의 이름을 합쳐 ‘미수’라고 불렀다. 하지



오페스트라단에서 첫 번째 연주를 마친 후 오페라 홀 입구에서 포즈를 취하는 김희수 동문이다.

(사진=김희수 동문 제공)

만 김 동문은 대학 시절 경험이 자양분이 됐다고 말한다. “좀 부끄럽지만 1학년 때는 게임에 미쳐있었어요. 매일 12시간씩 게임을 하곤 했죠.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의 집념이 훗날 반복되는 연습에 지치지 않고 나아갈 수 있게 하는 원동력이 됐어요.”

피할 수 없는 병역의 의무, 김 동문은 군악대에 들어갔고 좋아하던 게임을 끊고 모든 에너지를 연습에 쏟았다. 군 복무 중 레슨을 받을 방법이 없다 보니 유튜브 강의를 찾아가며 부족한 점을 보완하기도 했다. 스스로가 자신에게 최고의 선생님이 될 수 있다는 걸 깨달은 것도 이때부터였다. “강의를 볼 때마다 항상 뭔가 새로운 아이디어를 얻었어요. 더불어 꾸준히 연습도 병행했죠. 오직 개인의 노력으로 변화하는 자신을 볼 때 매일이 새로웠어요.

당시 도움을 받았던 유튜브 강의 속 선생님이 현재 대학원 지도 교수님이기도 해요.”

뿌연 안개 속 같던 음악인의 길 믿을 건 자기 자신 뿐

그렇게 인상 깊게 본 유튜브 속 교수님께 배우고 싶다는 마음만으로 직접 메일을 보내 입학허가를 받은 것도 집념 덕분이었다. “사실 목관 악기 전공으로 미국으로 유학가는 경우는 흔치 않았어요. 대학원도 그 교수님만 바라보고 지원했으니 지금 생각해보면 참 무모했던 것 같아요.”

대학원 입학을 위한 첫 관문인 영상 오디션에 합격한 김 동문은 라이브 오디션을 보기 위해 미국으로 건너갔다. 당시 기억에 남는 경험으로, 입학허가 전 유튜브 속 교수

님께 직접 연락해 레슨 받은 기억을 떠올렸다. “가르침을 받고 싶었던 교수님께 직접 레슨을 받으며 이 학교에 꼭 입학하고 싶다는 확신을 가졌어요. 레슨 중 교수님께서 서로 호흡이 맞는지도 유심히 보시던 게 기억에 남네요.”

대학원에서 실력을 갈고닦던 김 동문은 경험 삼아 수석 연주자 오디션에 지원했다. 인생 첫 공식 오디션이었다고 한다. 하지만 경험 삼아 지원해본 이 오디션은 단숨에 김 동문을 대학원생에서 리릭 오페라 오브 시카고의 수석 연주자로 만들었다.

수석 연주자는 까다로운 오디션으로 선발한다. 리릭 오페라 오브 시카고의 오디션은 네 단계에 걸쳐 진행됐다. “지망했던 곳이었지만 사실은 별 기대 없이 임했어요. 워낙 큰 오디션이기도 했고 경쟁률이

굉장히 높았거든요. 경험을 쌓자는 생각으로 갔는데 운 좋게 합격했네요 하하.” 운이 좋았다며 겸손하게 말한 그였지만 사실 그 이면엔 끝없는 고뇌와 자기 성찰 그리고 반복된 연습이 있었다. 어린 시절부터 쌓아온 자양분이 이제 비로소 싹을 틔워 빛을 발한 순간이었다.

수석 연주자로서 새로운 시작 ‘신나는’ 인생의 내리막길

김 동문은 이제 리릭 오페라 오브 시카고의 수석 연주자로 인생의 변곡점을 맞았다. 꿈만 같은 자리지만 그만큼 부담도 막중하다. “수석 연주자 혼자 연주해야 하는 부분도 많아요. 그때의 책임감은 이루 말할 수 없죠.” 반복되는 고된 연습을 하며 연주의 ‘완성도’를 높이는 한편 ‘신선도’도 놓치지 않는다. “저에게 반복되는 또 하나의 연주일 수도 있어요. 하지만 연주를 보러 온 관객 누군가에게는 처음이자 마지막이 될 수 있는 자리잖아요. 잊지 못할 추억을 가져가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임하고 있어요.”

오케스트라단 입단 후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로 첫 공연을 떠올렸다. “하필 첫 연주곡이 쉬는 시간 없이 2시간 30분 동안 진행되는 곡이었어요. 평소 화장실에 자주 가는 편인데 연주 중 갈 일이 생기지 않도록 신경을 많이 썼죠. 연주 전 음식과 액체류를 먹지 못해 고생했던 기억이 나네요.”

김 동문은 음악인을 꿈꾸는 후배에게 “스스로가 본인에게 최고의 선생이 되어야 한다”고 조언한다. “충분히 가르침을 받고 어느 정도 경험을 쌓고 나서부터는 결국엔 끊임없이 스스로를 올바른 방향으로 피드백하며 성장할 수 있냐의 싸움이라고 생각해요. 항상 누군가에게 옆에서 가르침을 받을 수는 없으니까요.”

‘인생은 롤러코스터 같다’는 말이 있다. 김 동문의 인생은 이제 ‘신나는 내리막길’에 접어들었다. 흔히 ‘인생의 내리막길’은 부정적 의미로 쓰인다. 하지만 김 동문은 달랐다. “내리막길에서 힘을 받아 앞으로 더 큰 오르막길을 올라갈 생각에 설렘을 느껴요.” 김 동문은 자신과 그리고 관객들과 끊임없이 교감하며 성장하는 중이다. “제 최종 목표는 클라리넷 지도자가 되는 거예요. 남에게 지식을 전달할 때 성취감을 느끼는 자신을 발견했거든요.”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현재를 살고 있는 청춘들에게 김 동문의 마음가짐은 현재를 살아갈 힘을 불어 넣어준다.